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제8회 솔티모시 축제 19~20일 개최

정읍시 송죽(솔티)마을에서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제8회 솔티모시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솔티마을의 풍부한 전통문화와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며 화합할 수 있는 행사로 꾸며진다.

첫날은 풍물패의 식전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진행되는 비빔밥 체험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누며 점심식사를 즐기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예술동호회 공연도 진행돼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날에는 장지잡음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이 친목을 다지며 푸짐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솔티숲 탐방로 걷기, 솔티숲 명상 체험, 모시족욕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어 참가자들은 마을의 자연과 역사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관리·재해 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가속화

정읍시는 지역 내 소하천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갑곡면 방교소하천을 포함한 8개 구간, 총 연장 약 4.7km에 걸쳐 진행,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사전 행정 절차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실계용역을 빠르게 착수에 재정 신속집행 실적향상을 제고하겠다는 것.

기존 소하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정비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됐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하폭 확장과 노후된 하천 시설물의 보강을 통해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유지관리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35회 정읍사문화제 개최

제30회 시민의 날 · 제17회 평생학습축제와 함께 풍성한 프로그램 선보여

정읍시는 오는 28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정읍시문화공원에서 '제35회 정읍사문화제'를 개최한다.

현존 최고 백제가요 '정읍사'와 정읍사 여인의 송고한 사랑을 기리는 이번 문화제는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시와 (사)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제30회 시민의 날'과 '제17회 평생학습 축제'도 함께 열려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공식행사로서는 채수연씨, 정읍사여인 제례, 부도여인상 시상 기념식 축하공연, 정읍사가요제가 마련됐다.



28일 정읍사문화제와 시민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에는 인기 가수 조항조, 김태연, 별사랑, 김소유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며, 27일 정읍사 가요제에서는 장윤정, 정수라, 신인선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정읍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가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에 설치된 야간 경관조명은 가을밤의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정읍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번 문화제를 기획했다"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년 국가예산 확보 · 현안사업 건의 위한 국회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 이성운 의원 등과 만남...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 등 국비지원 요청

심덕섭 고창군수가 16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발전 위한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하며 국회 단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심 군수는 이날 오후 고창출신 이성운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과 면담을 통해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 △노을대교(국도77호선) 건설사업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사업 △고창군 국가지정 문화유산 지정·승격 등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며 국비지원 등을 요청했다.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200억원)은 대규모 민간투자가 진행되는 고창군 심원면 염전부지 일원에 국내 최초 카누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은 2029년 완공되는 체류관광 랜드마크인 고창종합레미파크와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색다른 레저 액티비티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고창군의 핵심 전략사업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대규모 선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신축되며, 2029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고창군 건립 당위성이 큰 사업이다.

이에 더해, 고창군민의 최대 관심사업인 노을대교(국도77호선)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승인과 총사업비 증액(3870억원→4294억원),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고창군의 우수한 도 지정 문화유산 3건(이재난고, 반암리 청자요지, 황윤석 생가)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지정·승격(이재난고(보물), 반암리 청자요지(사적), 황윤석 생가(국가민속유산))를 건의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될 경우 국가차원의 행정·재정지원이 확대되어 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심 군수는 고창출신 안규백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을 만나 3000억원 규모의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제17회 구절초꽃축제 성황리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지난 13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17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열렸으며, 축제 기간 동안 약 7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축제 후반부에 구절초가 개화하면서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했다. 늦게 개화한 구절초꽃은 10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때까지 총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축제는 끝났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를 반영해 구절초 지방정원을 무료로 개방하며, 오는 20일까지는 특산물 먹거리 장터와 푸드트럭 운영을 연장했다. 정원 내에서는 31개의 지역 특산물 판매점과 7개의 푸드트럭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지역 유명 맛집과 농가가 참여해 먹거리의 다양화와 풍성함을 더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꽃멍 정원명', 꽃열차, 구절초 묘목 분양, 정원 스탬프 투어, 나무놀이 감성 체험 등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숲속 15만㎡에 펼쳐진 구절초는 관광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고, 들꽃정원의 화려한 백일홍과 코스모스 땀싸리 등 가을꽃들이 가을의 정취를 더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축제에서 구절초 정원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신규시책-국가예산 발굴 최종보고회

부안군, 청정수소 실증단지 · 매창공원 물놀이터 등 우수사업 선정

부안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 주재로 '부안군 미래 100년 발전을 향한 대도약'이라는 기치 아래 2025년 신규시책 및 2026~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발굴된 총 176건(신규시책 115건, 국가예산 61건)에 대해 1차 서면 심사(국별 소관부서)와 2차 대면 심사(부안군수 주재)를 거쳐 선정된 15건의 사업에 대해 보고와 토론 형식으로 심도 있게 진행했다.

특히 최동배 전북대 교수, 전영욱 군산대 교수, 이동기 원광대 교수, 유승수 전북연구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하는 등 부안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다했다. 이날 심의를 통해 청정수소 실증단지 조성, 부안 매창공원 물놀이터 조성, 노을빛 정원 랜드마크 스카이라이프 조성사업, 부안 노을빛 정원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365 스마트 안전 통합시스템 구축 등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지회장 김성태)는 16일 부안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사회단체장, 지회 임원 및 관내 어르신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겨운 잔치마당으로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이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앙양시키고자 마련된 행사로써 평소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모범 노인(부

안읍 김광석 외 12명) 및 노인복지 기여자(부안종합사회복지관 조민욱 외 3명), 노인봉사상(부안읍 장덕순 외 12명), 효행상(주산면 유성일 외 3명), 감사패(부안농업협동조합 김원철님 외 2명), 장수상(부안읍 전준양) 등 3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성태 지회장은 기념사에서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 사회에서 어르신 복지실천을 위해 앞장서며 정성을 다해 부모를 섬기는 효행 실천의 공로로 표창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외국인 등록 대행 서비스 시행 '호응'

고창군이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등록 대행 서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기존에는 농가나 계절근로자 등이 복잡한 구비서류 등을 직접 준비해 전주 외국인사무소까지 다녀야 했다.

이에 군은 올부터 농가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업,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농가들은 큰 호응을 보내주고 있다. 한 농가는 "매번 외국인 등록을 할 때마다 전주까지 가야했고, 보완할 사항



도 많았는데 고창군의 등록 대행 서비스로 시간도 절약되고, 바쁜 농번기에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어서 편하고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창군은 농가 경영 안정화와 계절근로자 편의 지원사업으로 산재 보철료, 미약검사비, 성실근로자 항공료,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